

제2회 5월 12일 일기수집 이벤트는

인간과기억아카이브와 영국 서섹스(Univ.of Sussex) 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서섹스 대학은 일상아카이브(Everyday Life Archive)를 구축하여 현대 영국인들의 삶과 문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서섹스 대학 협업기관으로서 한국인의 5월 12일 일기를 수집합니다.

21세기 한국인의 일상을 기록할 이 일기들은 앞으로 역사학, 인류학, 언어학 등 다양한 학술 연구와 온라인 전시 등 문화 콘텐츠로 활용됩니다.

매년 행사를 통해 수집한 일기는 디지털화, 주제분류, 목록화 작업 등을 거쳐 보내주신 분들께 1년 후 디지털 사본을 보내드립니다.

올해에도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 방법

제출형식 디지털 파일 (문서, 사진, 녹음, 동영상), 손으로 직접 쓴 일기장이나 그림일기 등.

내용 2014년 5월 12일 하루 일과, 옷차림, 만난 사람, 스쳐간 생각 등

제출방법 1. 온라인 참여
<http://omeka.hmarchives.com/> 에 접속하여 파일 업로드

2. 우편접수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10층 11033호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제출기간 2014년 5월 12일 ~ 5월 31일

문의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02-300-1845
diary512@rikar.org

인간과기억아카이브 Human and Memory Archives

개인, 가족, 동호회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증받습니다.

기증된 기록물은 생활아카이브로 보존됩니다.

기증 문의 전화 02-300-1846,
메일 jeonhy@rikar.org



인간과기억아카이브
홈페이지



소장기록물
온라인 전시관

Monday 12th May 2014 - Annual Call for Day Diaries

제2회 5월 12일 일기수집 이벤트

2014년 5월 12일 그날의 기억을 보내주세요

1년 후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다시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기록한 일기를 보내주세요.
당신의 작은 기억이 모여 대한민국의 역사가 됩니다.

- 주최** 인간과기억아카이브
- 홈페이지** <http://hmarchives.com>
- 주소**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본관 10층 11033호
- 전화** 02-300-1845-6
- 이메일** diary512@rikar.org

제1회 5월 12일 일기수집 이벤트 소개

지난 해 7살 유치원부터 학생, 직장인, 주부, 80대 어르신까지 581명의 시민들이 인간과기억아카이브에 일기를 보내 주셨습니다.

2013년 5월 12일, 시민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http://omeka.hmarchives.com>

테마별 전시구성

- 성장일기
- 특별한 일요일
- 부모님 사랑
- 친구와함께
- 따분한 하루
- 생일그리고이벤트

어제 밤은 맑고 오늘 우리 석우
큰 판과 사위, 손자, 작은 딸과 사위, 손자
역시 아들, 딸, 여승미, 그리고 짐사각과 나.
이렇게 총인원 10명이 모여서 조종실에 앉아서
화피 아닌 화피를 위해 화피 짐사각, 아승미
또한 화피를 신장수 갖게 되는 양연성을
어찌 표현 할지?
지구의 청년이 경은 43 후각이 정이들이
이제 10후에 죽어 서오주 화로한 짐사각에게
고백하고 짐사각에게 가슴이 저려온다.
손과 맞닿 두분 시어머니를 보이며 70후후
살아오면 래랑(?) 된 그래에 외종양 수술로
사영술 해에 먼 짐사각이 화로한 것 굉장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 감사 하며 그후후
우리 석우는 불 밤은 가족이 되고 자부라고 싶다.
마친 오스 (현) 시 일기 큰 딸 날비이라 아들
영은 이이 바련한 웨이리 와인 또한 딸들이

부모님 사랑 74세 남성. 어버이날을 맞아 반추한 나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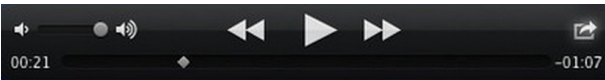
6:10, 밥을 먹기 위해 밥을 먹기 위해 냉장고를 열었는데, 밥이 없다. 으음, 결국 시리얼로 아침을 대신하기로 했다.



성장일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D-180 수험생의 하루

아침 7시 15분 눈을 떴다.
오늘은 아프리카에서 164일째이다. 그러니 한국시간으로는 오후 2시 15분
다. 아침 예배를 드린 후 바로 공항으로 가야 하기에 서둘러 준비를
다들 많이 오늘도 햇살은 밝고 공기는 맑다. 멀리인 듯 가까운 곳에서는 이
감정을 시작했다. 같은 영소거리라도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며 우짖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영소들끼리는 무슨 말을 주고 받는 거지,
가 사위살로 발걸음을 옮긴다.

특별한 일요일 20대 여성.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쓰는 일기



부모님 사랑 80세 여성. 막내딸과의 통화 - 오디오 일기

집에서 인형깁고 동생이랑 놀았어요



셋별유치원 신나는반 원생 - 그림일기